

CHECK AGAINST DELIVERY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모두 발언문

**서울 한국 프레스 센터
2017년 12월 14일 오후 2:30**

안녕하십니까,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후 세 번째 방한으로 나흘 간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는 자리입니다. 금번 방문이 원활하도록 도움을 준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합니다. 아울러 방한 일정 조정을 지원해 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정부, 시민사회, 외교계 및 언론 관계자를 비롯하여 여러 이해관계자와 만났습니다. 외교부, 통일부, 대법원, 국회 관계자와 면담했습니다. 면담 시 대한민국 정부는 항구적 평화 구축, 인도적 지원 제공, 성장 동력이 될 경제 협력 추진을 바탕으로 남북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포괄적인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주한 외교 관계자뿐 아니라 대한적십자사 회장와 인권 및 평화구축 관련 기관 대표자 등 비정부 부문 관계자들도 만났습니다. 또한 올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떠나 온 북 주민 다수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선 언급한 면담 과정에서 여러 사안을 논의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보호 옹호 노력 강화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방한 중 만난 젊은 탈북인에게 탈북 이유를 물었고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월급은 받지 못하고 공장에서 일했고, 저녁에는 밀수를 했다. 국가가 아무것도 주지 않아 그렇게 해야지만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방한 중 만난 다른 탈북민도 북측 내 암울한 일상을 들려줬습니다. 월급을 받지 못하고,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이들만 기본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 배급을 가장 필요로 하는 지역 주민에게 식량 배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반 주민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비공식 경제 활동을 해야지만 식량이나 기타 생활 필수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근간을 두는 자주라는 이상, 다른 말로 주체 사상은 현실에서 대중의 집단 노력이 아니라, 개인이 생계 유지 방안을 스스로 찾아야 하는 개별화된 형태로 변화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가 주민의 노동력을 주기적으로 동원하며 주민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특히 평양이 아닌 지방에서 이러한 모습이 두드러집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 및 경제 구조는 본래 국민의 권리와 필요를 충족시키도록 고안되었지만, 더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남은 것은 전국민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체계입니다. 반면 정치적 힘과 영향력이 있는 이들은 문제없이 공공 서비스 혜택을 받는다고 알려줍니다.

이러한 상황이 새삼스럽지는 않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경제권 및 사회권이 공평하게 보장되지 않는 양상은 잘 알려진 바이며, 해당국 내 상황을 주시해 온 이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을 접하면서 평양 내 주민과 나머지 대다수 주민 간 생활 수준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에 우려를 표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배경 하에 자원의 상당 부분이 군수에 지출되고 유례없이 국경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 또한 우려스럽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우선 순위는 국민의 기본적인 필요를 시급하게 충족시킬 필요성을 인지하여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으로 인한 안보 위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조치를 통해 국제적 압박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편 평화적인 외교적 해결책이 최우선순위에 놓여 있으며, 사실상 관계당사자와 국제공동체 전체가 나아가야 할 유일한 방향이기도 합니다.

국제 제재를 고안하고 적용할 때 인권과 생계 수단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할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한 예로 국제 송금 제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유엔 기관 조달이나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유엔 기관은 북 주민에게 기본적인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유엔 제재 조치를 비난합니다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유엔 제재 조치가 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질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제재 조치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는 경제 부문을 인권 모니터링 요원이 살필 수 있도록 접근을 허용하며, 유엔 인권 메커니즘 및 안전보장이사회와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 특정 제재 관련 사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사안 중 남북 간 헤어진 가족 문제가 이번 방한 기간 동안 재차 언급되었습니다. 약 5 만 9 천 여 명의 고령자가 북측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길 희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겪고 있는 견디기 힘든 고통은 용인해서도, 정당화해서도 안됩니다. 남북 양측이 안보 및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체없이 남북 가족 상봉을 재개하기를 촉구합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가 남북 가족 간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대한적십자사 노력이 빠른 시일 내에 결실을 맺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에는 다른 이유로 가족과 헤어진 이들이 있으며, 마찬가지로 시급하게 다뤄야 할 사안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탈북민 사례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대한민국이 납치한 것이라 말하는 12 명의 식당종업원 사례입니다. 식당종업원 한 명의 아버지가 딸과 만나지 못한 채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족과 헤어진 대가를 피해자가 치르는 불합리한 사례입니다.

방한 동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책임 규명 의제 관련 전개 상황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향후 소추에 활용될 인권 침해 사례 저장소(repository)를 구축할 사법 전문가를 채용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관련하여 2016년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근거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립하여 인권 침해 증언을 수집 및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 의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측면 뿐 아니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책을 방지하고, 인권 침해 피해자가 법적 구제를 청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책임 규명에 동참하는 이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며, 책임 규명 노력이 성공을 거두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모두 발언을 마무리하기 앞서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인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창구가 올해 마련되었고 아울러 이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강조했습니다. 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했고, 여성 및 아동 권리 위원회에서 국가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장애인, 여성 및 아동 인권 분야에서 해당국 내 상황을 살피고, 이를 개선하도록 실질적 조언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의미한 기회입니다.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 절차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조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고 마련에 도움이 되며, 국제공동체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길 독려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력의 기회가 제네바에서 외교적 대화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권고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 행정 전반에 걸쳐 현장 관계자와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비핵화 관련 대화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고무적입니다. 아울러 대화 의제로 반드시 인권이 주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동북아시아에 방문하게 된 기회를 빌어 다시 한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저, 특별보고관과의 협력하길 요청합니다. 더불어 다른 특별보고관이 협력 및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이에도 응하길 요청하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정기적으로 소통하길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렸습니다. 인권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효과적으로 개혁할만한 기회가 충분합니다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국제 참여자와의 대화에 일관되게 진심으로 임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